

##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

### 문항 1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의 ‘세잔’ 과 제시문 [나]의 ‘관상가’ 가 보여 주는 사고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다]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유사성’ 의 시각에서 제시문 [가]의 ‘세잔’ 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시오. [20점]

### 문항 1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진 제시문들을 통해 통념에 대한 태도, 관점의 전환, 새로운 해석의 문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직업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공통점을 추출하고, 제시문 [다]의 유사성과 상사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제시문 [가]와 연관 짓도록 한 이 문항은 세 편의 글을 읽고, 상호 관련되는 요지를 비교할 뿐 아니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관된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박일호의 「세잔과 입체파」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서양화의 흐름에서 인상파에서 입체파로 넘어가는 지점에 위치했던 세잔의 조형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잔은 빛과 색의 재현이라는 인간의 시각 중심적 관점을 전환하여 감각적 경험과 지적인 원리의 조화 및 물체 중심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제시문 [나]는 이규보의 「관상가와 대화」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어떤 관상가가 유명세와 더불어 사기꾼으로 고발되자 이규보가 그의 관상법에 대해 듣고 그 대답을 기록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관상가는 기존 관상법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는 역발상과 자신의 해석 방식을 토대로 관상을 봐 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EBS 수능특강 독서의 「미학과 과학에서의 닳음의 의미」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미학에서 닳음을 의미하는 유사성과 상사성을 설명하고, 과학에서 닳음을 의미하는 상사와 그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126-130	제시문 [가]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21	287-289	제시문 [나]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 방송공사	2021	256	제시문 [다]	○

**문항 1 - 문항 해설**

■ 문항 1-(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각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 및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제시문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이해력을 판단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세잔이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한 방식을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는 관상가가 기존의 관상법을 답습하는 대신 자신의 관상법을 마련한 방식을 설명한 후 두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도록 하였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다]에서 설명된 유사성을 개념을 이해하고, 제시문 [가]에서 세잔이 유사성을 구현하는 방식을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학에서 닮음을 의미하는 유사성과 상사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세잔의 예술세계를 분석하여 유사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은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예술세계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1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b>제시문 [가]의 세잔이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중심의 원근법적 시점을 변화하여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를 표현하려 함.</li> <li>- 자연 속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도형적 해석을 주장하고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한 조형 세계를 구축하려 함.</li> </ul>	5점
	<p><b>제시문 [나]의 관상가가 사람의 관상을 해석하는 방식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관상법을 따르지 않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자신만의 관상법으로 관상을 보려 함.</li> <li>- 통념의 한계를 깨고 역발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방식의 해석과 인물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관상법을 시도함</li> </ul>	5점
	<p><b>제시문 [가]와 [나] 분석에 나타난 공통점을 추출하여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잔과 관상가는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기만의 방법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음.</li> </ul>	5점
	<p><b>형식의 완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어법에 맞는 글쓰기</li> </ul>	5점
1-(2)	<p><b>제시문 [다]의 유사성과 상사성의 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성 : 원본을 전제한 재현, 객관적 기술, 근대 의식 철학의 원리, 유럽 전통회화</li> <li>- 상사성 : 원본의 부정, 다양한 해석의 놀이, 현대 언어 철학의 원리, 현대 예술</li> </ul>	5점
	<p><b>제시문 [가]에서 세잔은 유사성의 예술 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잔은 모든 자연 속 대상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li> </ul>	4점
	<p><b>제시문 [가]에서 기하학적 사유를 통한 형상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속 대상을 변하지 않는 영구적 존재로 보고 이를 재현</li> <li>- 입체적인 구조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표현</li> <li>-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통해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를 표현</li> </ul>	4점
	<p><b>제시문 [가]에서 원근법을 극복한 대상 중심의 공간 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래 인간 시점을 중심으로 한 원근법에서 탈피</li> <li>-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묘사</li> <li>- 객관적 존재의 충실한 묘사를 토대로 한 것</li> </ul>	4점
	<p><b>형식의 완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li> </ul>	3점

## 문항 1 - 예시 답안

### ■ 문항 1-(1)

제시문 [가]의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 세계에 질문을 던지고 이를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화시켰으며, 자연 속 대상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이라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즉 그는 대상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기존의 방식과 관점 대신 자신의 관점으로 물체들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제시문 [나]의 관상가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관상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나 고정적 해석에서 탈피하여 역발상적인 접근과 해당 인물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관상을 보려 하였다. 즉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투시적인 해석법을 극복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상법을 제시한 것이다.

제시문 [가]의 세잔과 제시문 [나]의 관상가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은 둘 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세잔은 회화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시점이 아니라 물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했고, 관상가는 기존 관상법의 통념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려 시도한 것이었다. 즉 세잔과 그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은 익숙한 기존의 관점을 추수하는 대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려 했다는 점이다.

### ■ 문항 1-(2)

제시문 [다]에서는 원본을 전제로 가까움을 추구하는 유사성과 원본이 없는 복제인 상사성이라는 두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유사성은 근대 의식 철학의 주된 원리로, 세계에 대해 유일하고 올바른 객관적 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였다. 예술에서는 자연의 모방을 추구한 르네상스에서 19세기 이전 유럽의 전통회화에서 나타났다. 상사성은 현대 언어 철학의 원리로, 절대적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다양한 해석들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림 밖의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 현대 예술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닮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이 없는 복제들 사이의 닮음이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세잔은 자연 속 대상을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존재로 보고 이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원본을 전제로 한 유사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상주의와 달리 빛의 변화에 의해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 대상을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표현하였다.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통해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종래 인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원근법에서 벗어나,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에 두는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는데, 객관적 존재의 충실한 묘사를 의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세잔의 기하학적 사유와 대상 중심의 공간구성법은 원본의 재현을 추구한 유사성의 예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문항 2**

[문항 2] 제시문 [라]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대비하시오. [30점]

**문항 2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경제 발전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의 영어 구문과 스마트 농업이 초래하는 발전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이를 제시문 [마]가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비교, 설명해야 한다. 이 문항은 동일한 표현의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는 맥락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사실 파악 능력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문항 2 -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영어 II	이재영 외	천재교육	2020	107-113	제시문 [라]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1	270-273	제시문 [마]	○

**문항 2 - 문항 해설**

이 문제에서는 영어 지문 제시문 [라]의 내용을 발전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우리말 지문 제시문 [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두 제시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은 문맥과 사실 파악을 중심으로 필자들의 논지 전개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함으로써 이해력과 비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문항 2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b>제시문 [라] 내용 요약</b> -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정의 - 스마트 농업의 효과 - 스마트 농업과 관행 농업과의 차이 - 스마트 농업의 목표는 효율성과 이윤을 강조하는 경제적 발전	10점
	<b>제시문 [라]의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 발전과 제시문 [마]의 지속 가능한 발전 관계 대비</b> - 제시문 [라]는 ICT기술이 농부들에게 시간,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농업 경영의 발전을 주장함. 제시문 [마]는 현 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 성장과 함께 후대를 위해 환경 보존과 사회 안정 및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주장함. (5점) - 제시문 [라]는 농업 발전이 약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제시문 [마]도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 보존을 강조하나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이 발전의 목표가 아님을 주장함. (5점) - 제시문 [라]는 발전을 단위 경제 체제의 이윤 극대화를 주장하는 기업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 반면 제시문 [마]는 발전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가능한 발전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 주고 있음. (5점)	15점
	<b>형식의 완결성</b>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라]는 드론, 로봇과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이 혁신적인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구체적인 예로 소와 같은 가축의 상대나 농장의 상황을 감지하여 알려 주는 장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농업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가축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여 병원비 등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임신 등 가축의 상태를 일일이 관찰하느라 사용해야 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는 농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스마트 농업을 통해 가축 복지의 증대는 물론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발전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는 공통적으로 발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문 [라]는 스마트 농업의 예를 들어 ICT 기술이 농업 경영에 투여할 비용과 시간을 줄여 주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로 경영 효율성과 이윤 창출이라는 경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마]도 현 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 성장과 함께 후대를 위해 환경 보존과 사회 안정 및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의 긍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라]는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거의 약탈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 보존을 강조하는 제시문 [마]의 주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라]가 약탈적인 관행 농업 대신 동물의 복지,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언급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과 비슷하지만, 제시문 [라]는 동물의 복지가 우유 생산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이 발전의 목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문 [라]가 주장하는 발전은 단위 경제 체제의 이윤 극대화를 주장하는 기업 논리와 유사한 반면, 제시문 [마]는 발전과 보존의 균형 속에서 가능한 발전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현재를 위한 극대의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하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이 중요하며, 경쟁적으로 단위 경제 체제의 최고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통해 발전을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제시문 [라]와 다른 점을 보여 준다.

**문항 3**

[문항 3] 제시문 [바]의 비어즐리와 스테커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의 미술 작품 「남귀덕」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각각 평가하시오. [30점]

**문항 3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예술 작품 해석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의 예를 평가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EBS 수능 특강 <독서>에 수록된 예술 작품 해석의 방법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비어즐리로 대표되는 일원론적 해석, 스테커로 대표되는 다원론적 해석을 소개하며, 관점에 따라 예술 작품의 의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김숨의 「뿌리 이야기」라는 소설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소설은 2015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으로 식물의 뿌리를 오브제로 하여 설치미술을 하는 ‘그’와 그의 연인 ‘나’, 그리고 ‘나’의 고모할머니 남귀덕의 삶이 포도나무 뿌리로 만든 작품 「남귀덕」을 교차점으로 하여 개인사적 경험과 역사적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뿌리 뽑힌 삶’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작품 「남귀덕」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술 작품의 해석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한다.

**문항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21	88-93	제시문 [사]	○

(2) 교과서 외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EBS 수능특강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0	28	제시문 [바]	○



**문항 3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통해 주어진 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대상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바]에는 예술 해석에 대한 상반된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제시문 [사]에 등장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인물의 반응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여, 개념 이해와 적용, 그리고 작품 해석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문항 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b>제시문 [바]의 두 가지 관점 이해</b> - 비어즐리의 일원론에 대해 작품 자체의 의미를 찾는 ‘해석’과 작품 외부의 요인을 연관시키는 ‘부과’를 구별하여 이해함. - 스테커의 다원론에서는 목적, 배경, 개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을 이해함.	5점
	<b>제시문 [사]에 대한 일원론적 평가</b> - ‘나’의 생각에는 작품 자체가 아닌 감상자 ‘나’의 경험과 역사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아니라 부과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함.	10점
	<b>제시문 [사]에 대한 다원론적 평가</b> - ‘나’의 생각에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유년 시절의 경험 등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함.	10점
	<b>형식의 완결성</b>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5점

**문항 3 - 예시 답안**

제시문 [바]에 따르면 예술 작품을 해석할 때 비어즐리로 대표되는 일원론적 시각에서는 작품 외부의 것을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부과’라고 보고 작품 자체의 의미를 추구한다. 반면 스테커와 같은 다원론적 시각에서는 일원론적 해석은 ‘보고’에 불과하며, 목적이나 해석 배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시문 [사]에서 ‘나’는 일전에 ‘그’와 함께 포도나무 뿌리를 함께 운반하면서 그에게 고모할머니의 이야기를 하였다. 시간이 흘러 포도나무 뿌리는 ‘그’의 작업을 거쳐 「남귀덕」이라는 제목의 예술 작품이 되었고,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고모할머니의 손, 그리고 그의 삶을 떠올린다. 역사적인 아픔을 겪은 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았던 고모할머니의 삶이 곧 원래 자리에서 파헤쳐 내팽겨쳐진 뿌리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에게 가족이나 사회가 그녀를 품어 주는 흙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작품 자체의 의미에 주목하기보다 해석자의 친족 관계에 기반한 경험이라는 작품 외부의 요인을 투사하여 작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해석에 미치지 못하는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스테커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일본군 위안부인 고모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일종의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며, 흠을 떠나 전시장에 놓인 뿌리 작품을 통해 뿌리 뽑혀 떠돌던 존재였던 고모할머니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감상이 잘 구현된 타당한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